

15-16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과 변화: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을 중심으로*

김 동 업**

I. 머리말

본 연구는 외부세력으로서 근대 이후 동남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서구세력의 초기 진출, 특히 포르투갈의 진출이 동남아 해상무역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서구문명의 동남아 전파 과정의 일면을 조망하였다. ‘동남아 문명’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동남아 역사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시대에 관한 기록의 미비로 많은 부분 상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동남아 문명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외부문명의 능동적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동남아를 이해하려고 한다(Coedès 1968). 이는 곧 동남아를 인도문명이나 중국문명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동남아에 전파된 외부문명은 동남아적 토양에 맞추어 정착되었으며, 또한 동남아 사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인도나 중국의 문명은 동남아의 종교와

* 이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09-362-B00016). 이 논문은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월례발표회와 2011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출고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익명의 논문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이메일: iamkimdy@hanmail.net).

왕권사상 등 전통적인 풍습과 권위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무역루트를 통해 전파된 이슬람은 동남아의 종교적 지평을 재구성했다. 이후 도래한 서구문명은 동남아의 ‘근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문화’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¹⁾

보통 서구문명의 확산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15세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근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²⁾ 따라서 16세기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서구문명의 동남아 진출에 관한 고찰이자, 동남아 근대화 초기단계의 외부문명 전파와 수용의 맥락에 관한 고찰로서 의미를 갖는다. 동남아는 외부문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해 왔으며, 이는 이미 인도문명과 중국문명, 그리고 이슬람의 전파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서구문명이 진출할 시점에서의 동남아는 이미 다양한 외부문명의 영향으로 복잡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서구문명의 전파는 동남아가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구조화된 다양성을 넘어 내재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Benda 1962). 이는 서구문명의 전파가 다양한 외부문명의 영향에 의해 구조화된 동남아의

1) ‘근대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막스베버(Weber 1992)는 “봉건사회의 해체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생성과 전개과정”으로 봄으로써 서구문명의 확산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았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세속적 정치권력의 확보, 국민국가의 제한된 영토 내에서 행사되는 주권과 그 정당성의 확립, 사적소유와 자본의 축적 그리고 대규모 생산과 소비에 근거한 상품시장경제의 성립,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계급형성 그리고 전통적 신분제 및 종교적 세계관의 쇠퇴 등을 들 수 있다(김성기 외 1992: 22). 한편 ‘자본주의적 문화’에 관해 슈페터(Schumpeter 1962: 123-124)는 전자본주의가 집합적, 감정적, 그리고 주술적 사고방식이었다면, 자본주의는 합리주의로서 극대화된 계산과 논리적 일관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사회적 공간이 생성되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지식을 유인한다고 보았다.

2) 근대화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근대화의 시작을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본 글에서는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상업 자본주의(mercantile capitalism)의 본격화 시점을 고려하여 16세기부터 근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시작 시점에 관해서는 강성호(2006), 고원(2010), 김근수(2001), 설민석 외(1997), 이용일(2008) 등을 참조하시오.

다양성을 초월하는 근대적 가치, 즉 자본주의적 문화를 동남아 전역에 전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문명의 동남아 전파 과정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 문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동남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시대구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일치한다(Benda 1962). 15-16세기 유럽에서는 봉건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이전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전제체제가 차츰 덜 전제적인 체제로 변화하는 시기였다(Lockard 1995: 26). 리드(Reid 1990, 1993a)는 1450년에서 1680년을 ‘교역의 시대(Age of Commerce)’로 구분하고, 동남아 전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 봤다. 이 시기에는 초기 유럽과의 접촉이 있었고, 이슬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동남아의 중요한 제국들, 즉 아유타야, 마타람, 리왕조, 그리고 아쎬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15-16세기는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반도와 군도로 구성된 동남아의 지리적 특성은 일찍이 해상무역의 발달을 가져왔다. 무역을 통한 새로운 물품의 유입은 소비패턴의 변화와 생산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유발시켜 경제구조의 변화를 촉진했고, 더불어 유입된 종교와 사상은 정치적 권위체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싹트게 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상업 활동이나 무역방식의 변화는 부의 생산과 분배체계,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낳는다. 14세기 이후 급속히 성장한 동남아 해상무역은 동남아국가들이 보다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를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Lieberman 1993). 따라서 해상교역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과 관련하여 연구된 국내의 문헌은 극히 제한적이다. 동남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포르투갈이 동아시아 해상으로 진출하는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일부 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강장희 1999, 2001; 길인성 1995; 김대성 1987; 이승용 1997; 최영수 2005, 2006; Ptak, 신용철 1985).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과 영향을 소개한 연구들도 있다(김성원 2005; 양승윤 2002). 김성원(2005)은 포르투갈의 진출이 미얀마에 항구도시의 번성과 함께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였고, 또한 새로운 무기와 병술을 통해 군사력의 증강을 가져와 따웅우 왕국이 미얀마에 통일왕국으로 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하고 있다. 한편 말라카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양승윤(2002)은 포르투갈의 점령이 아시아 무역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포르투갈이 동남아에 진출하여 남긴 영향을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동남아에 서구문명 진출과정의 초기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외국의 학자들은 서구의 동아시아 진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내놓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Benthencourt and Curto 2000; Borschberg 2004; Boyajian 1993; Sarkissian 2000; Subrahmanyam 1993; Veen 2000; Winius 2001; 외). 또한 다양한 동남아 역사서들은 15-16세기 동남아 사회와 해상무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all 2004; Reid 1991, 1993a, 1993b; Tarling 1999).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과정과 초기 통치에 관한 내용을 각종 사료들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리(Lee 2005)의 논문은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이다. 외국의 다양한 연

구들이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동남아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문화 전파의 맥락에서 포르투갈의 진출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글에서는 우선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또한 그 행태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무역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외부적 영향의 유입 통로가 되는 무역네트워크의 특성과 교역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남아가 외부의 어떠한 특성과 연계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당시의 소비패턴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찰했다. 둘째로 무역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내부시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역방식의 제도화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달양상을 고찰하였다. 셋째로 통치자와 상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상무역의 확대가 정치적 권위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무역의 주체인 상인이 근대화의 주역이자 자본주의 주도세력인 도시 자본가로 발전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16세기 포르투갈의 진출이 기존의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 배경과 함께 동남아 해상무역에 새롭게 도입한 요소인 ‘식민지 구축과 신무기 도입’, ‘카르타즈(Cartaz, 통행증) 제도의 실시와 무역 독점’,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와 카사도(Casado, 혼혈)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의 진출이 동남아 근대화의 진전과 자본주의적 문화의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지의 전개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을 기존의 연구들에서 찾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남아연구소를 방문

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말라카를 방문하여 포르투갈이 남긴 역사적 흔적과 포르투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를 방문하여 실시한 인터뷰 내용 등이 본 논문의 작성에 이용되었다.

II.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의 특성

1. 무역네트워크와 무역품

15세기 동남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무역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문순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동양과 서양의 상선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군도 동쪽 끝에서 생산되는 향료(香料, Spices)가 전 세계적인 상품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동남아로 모여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³⁾ 특히 말라카의 성장은 다양한 거점을 가지고 운영되는 인도양 무역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말라카는 당시 인도양으로 향하는 동남아의 유일한 물류집산지이기도 했다. 동남아 군도 내의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자바 북쪽해안의 이슬람 왕국에 근거를 둔 상인들이 지배했다. 이들 상인들을 대신하여 향료를 찾아 동쪽 군도를 항해하는 사람들을 부기스(Bugis)라 통칭했다(Hall 2004: 250-252). 동남아 군도 내의 무역은 많은 이윤을 남겼으며, 이는 동남아 상인들이 지역 내의 무역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원거리 항해는 주로 외국 상인들이 맡았

3) 향료는 당시 인도네시아 동쪽 말루쿠 제도의 몇몇 섬에서 나는 정향(Clove, 丁香), 육두구(Nutmeg, 肉豆蔻), 메스(Mace)를 의미하며, 이는 후추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香辛料)와는 구분된다(최병욱 2005: 296).

다(Lee 2005: 113).

동남아 해상무역 네트워크는 서쪽으로 인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말라카는 캄바이(Cambay) 없이는 존속할 수 없고, 캄바이는 말라카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Lach 1993: 20). 캄바이 만에 위치하는 구자라트 상인들은 아덴(Aden)과 말라카를 잇는 장거리 무역의 중개인들이었다. 우선 카이로(Cairo)와 지다(Jiddah)의 상인들이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다마스쿠스(Damascus)로부터 물품과 돈을 가지고 홍해를 내려와 아덴으로 왔다. 그들의 물품은 서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온 물품과 교환되고, 아랍 선박을 이용하여 캄바이 만으로 날랐다 (Pearson 1976: 11). 구자라트 상인들은 이를 인도의 면직물과 교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동남아에서 온 향료였으므로 구자라트 상인들에게 말라카는 매우 중요했다. 말라카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향료의 대부분은 구자라트 선박에 의존했다 (Lee 2005: 39-40).

한편 동쪽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15세기 들어 조공무역이 극히 제한되었으며 사무역이 주를 이루었다(Hall 2004: 252).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신왕조 수립 직후인 홍무(洪武) 4년(1371년)에 연해주민의 출해(出海)를 금지하는 해금(海禁)정책을 반포했다. 해금정책은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국 상인들이 동남아 현지에 정착하여 사무역에 종사하거나 해적활동에 관여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는 동남아 정부에 고용되어 조공무역을 대행하기도 했다(조흥국 2001: 41). 15세기 초 정화의 원정은 동남아 해상무역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강력한 중국 함대가 무역로의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중국상인들이 샤먼(Amoy)과 광둥(Canton)에서 거대한 정크선을 이용하여 중국 물품을 동남아 군도의 여러 곳으로 공급했다(Fairbank 1942: 142). 더 이상 동남아 상인들이나 아랍 상인들이 중국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광둥까지 갈 필요

가 없게 되면서 동남아는 동서 무역품들이 교환되는 중심지가 되었다. 한편 일본 본토에 각종 외국의 문물을 증계했던 류큐 왕국의 무역네트워크도 이 시기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조흥국 2001: 47; Sakamaki 1964: 386-388).

15세기 무역품은 이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사치품은 물론 일상용품도 주요한 거래 품목이 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시장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동남아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향료, 금, 장뇌, 주석, 백단향, 황산 알루미늄, 진주, 쌀, 설탕, 선박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남아의 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무역품은 구자라트와 코로만델의 면직물과 옷, 쌀, 설탕, 건어(육)물, 건과류 등 음식물과 벵갈의 흰 옷감과 후추, 그리고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유입되는 금, 은, 수은, 주홍(vermilion), 구리, 장미향수(rosewater), 모직(wools), 그리고 문직(brocades) 등이 주를 이루었다. 동쪽의 중국으로부터는 도자기, 사향(musk), 비단, 수은(quicksilver), 구리(copper), 주홍(vermilion) 등이 유입되었다(Pearson 1976: 11; Hall 2004: 252).

이와 같은 교류의 확대는 15세기 동남아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도서부에는 이슬람이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무역항을 중심으로 수많은 술탄왕국들이 나타났다.⁴⁾ 포르투갈이 15세기 말 인도에 도착할 당시 수마트라 섬에는 29개의 왕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Dion 1970: 144).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이 절정을 이루면서 상업의 번성과 함께 문화적으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인 도시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해상무역을

4) 13세기 말부터 이슬람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주요 무역루트를 따라 동남아에 전파되었다. 특히 1425년경 말라카의 세 번째 술탄(Iskandar Shah)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많은 아랍상인들이 도래하였고, 이는 말라카 왕국에 많은 이윤을 남겼다. 말라카가 말레이 군도의 중심 시장으로 부상하자 다른 많은 항구도시들이 그 선례를 따랐다(Lee 2005: 32; Wolf 1982: 234).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함은 물론 다양한 외부의 문화들을 유입하는 통로가 되었다(Reid 1990: 3). 상업의 발달은 소비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외국에서 수입되던 물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입대체산업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도자기 수요가 급증하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자바에서는 13-14세기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제작한 도자기가 유통되었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중국 도자기 제조술을 배워 자체 제작한 도자기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철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와 옷감을 만드는 방적소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다(Christie 1998: 356-357).

2. 무역방식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은 자유로운 항해를 기초로 했다.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지역의 왕국들에 의해 존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⁵⁾ 이러한 동남아의 자유로운 항해 관습은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해를 규정하는 근대 국제해상법의 기초가 된 17세기 초 그로티우스의 주장(Mare Liberum)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15세기에 이미 말라카 해양법(Malacca Maritime Laws)

5) 포르투갈인 알부케르케(Albuquerque)는 북수마트라를 탐험할 때, 캄바이에서 오는 8척의 배를 습격하여 탈취했다. 그는 파사이(Pasi)와 페디르(Pedir) 술탄에게 8척의 배를 탈취한 사실을 알리고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것을 제안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파사이의 술탄은 전문을 통해, “선장에게 전하라, 우리의 법은 이웃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살 수 없으며, 특히 친구로부터 훔친 물건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것도 포르투갈로부터 매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mpoli, Giovanni da,(1970), *Lettera*, Introduced with notes by A. Bausani, Roma: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p. 228. Lee(2005: 55)에서 재인용. 이는 지역의 술탄들이 하나의 도덕적 규율에 근거해 행동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만들어졌으며, 인도네시아군도 동쪽에 있는 마카사르(Macassar)에도 부기스법(Bugis Code)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법규화되었건 그렇지 않았건 유사한 원칙들이 다른 해상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이는 동남아 해상무역에 관한 일정한 질서와 규율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는 ‘해양에서의 주권자’로 간주되는 선장의 권리와 선원들의 권리, 해상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선박과 무역조직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선박이 강이나 항구를 떠나 공해에 있을 때에는 자유로운 항해를 인정하고, 해적에 대해서는 해상세력의 공조를 통한 대처를 인정함으로써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했다. 선박이 일단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선장의 독점적 권한은 관할 항무관(Harbour Master)에게 이관됨을 규정하기도 했다(Anand 1981: 446).

무역선 운항에 관한 다양한 상업적 관례들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관례는 상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무역선을 타고 동행하여 자신의 물품을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서 배의 화물 공간(pedak) 이용료는 물건의 가치와 여행거리에 비례하여 선주에게 지불했다. 배가 침몰했을 경우 물품에 대한 손해는 상인이 감수했다. 부기스법에는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또 다른 관례로서 기탁(entrusting)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상인이 선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물품을 넘기고 자신은 배의 운항에 동참하지 않았다. 선주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일정기간 안에 인수받은 물품금액에 이윤을 더하여 상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에도 배가 침몰했을 경우 물품에 대한 손해는 상인이 감수했다(Reid 1993a: 48-53). 이와 같은 물품의 운반과 무역의 방식은 상업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동남아에서 15세기 상선의 운영방식인 화물 공간 대여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원들에게도 할인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는 무역으로 소규모 저축과 투자를 이끈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역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Lee 2005: 112-113).

항구에 도착한 외국선박들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말라카의 경우에는 서쪽에서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6%의 관세와 함께 술탄과 주요 관료에게 선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는 약 2%에 달했다. 선물 제공은 일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었다. 선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관원들은 물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동쪽에서 오는 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선물을 바치도록 했다. 이는 바치는 선물이 중국에서 온 물품처럼 높은 가치를 가졌다는 암묵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었다(Lee 2005: 105).⁶⁾ 대부분의 국제무역은 단일시장에서 이루어졌고 어느 도시도 외국인을 위한 3개 이상의 시장을 열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자유시장의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누구든지 당국에 일정한 세금을 지불하면 판매대를 열 수 있었다(Reid 1993a: 90-93).

일반적으로 항구에 근거를 둔 국제상인은 물품의 거래를 지역상인 네트워크의 대리인에게 의존하며, 이들은 국제상인과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 엘리트들의 이익을 중개했다. 지역의 물품이 무역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자바의 경우를 보면, 물품의 수집과정에서 단계별로 특화된 상인들이 존재했다.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를 돌며 물품을 모집하는 행상인(adwal, apikul)이 있었고, 이들이 모아온 물품은 시장에 정주하며 소매와 도매를 겸하는 상인(adagang)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모아진 물품은 전문도매상(abakul)에 의해 대단위 상인(adagong)에게 넘겨졌고, 이는 다시 상위 단계의 상인(banyaga bantal)에게 넘겨졌다. 이들

6) 여기에서 서쪽은 중동, 인도, 페구, 시암을 의미하며, 동쪽은 파항, 자바, 반다, 몰루카스, 팔렘방, 중국을 의미했다.

이 바로 지역시장과 무역업자(banyaga)가 상주하는 무역시장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무역시장은 왕도나 성지보다는 해변의 항구에 위치했다. 무역업자는 지역시장(pken)의 거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자바 경제에 상인과 시장의 행태에 위계질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Christie 1998: 350-351; Hall 2004: 242).

동남아의 무역항에서는 물물교환이나 화폐(동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역항과 내지의 물품거래는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지배자와 상인 간의 흥정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었다. 이는 15세기 동남아의 무역이 아직 시장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플라니(1994)가 구분하는 세 가지 무역형태 중 ‘시장무역’보다는 ‘관리무역’의 행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⁷⁾ 플라니는 무역이 시장과 언제 연결되는가는 상업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했다. 당시 동남아는 무역이 자체적인 동력으로 사회 구조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상업문화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동남아 해역에도 해적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오랑라웃(Orang laut)이라 불리는 집단의 일부이기도 했다.⁸⁾ 이들은 특정

7) 무역은 역사적으로 기증무역(gift trade), 관리무역(administered trade), 그리고 시장무역(market trade)으로 진화하였다. 기증무역은 호혜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제국들 사이에서 행해진 수많은 무역들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무역은 다소 공식적인 조약에 의거해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 또는 적어도 정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무역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리무역의 주요 시설이 무역항이다. 시장무역은 전형적인 무역 형태로서 교환하는 상대방을 직접 연관시키는 통합의 형태이다. 교역품의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이며, 수요-공급-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한다(플라니 1994: 340).

8) 오랑라웃은 살레테스(Saletes)라고도 불리며, 이는 말레이어의 셀랏(Selat)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바다의 사람(sea people)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들은 주변바다에 관해 필요한 모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로부터 필요한 생필품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느 군도에서 가장 싼 물품을 발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동일한 종족집단이 아니며, 자신들의 우두머리에게 복종하고, 우두머리는 주변 왕국의 통치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무리를 이끌었다(Lee 2005: 109-110).

항구의 지배자들과 결탁하여 경쟁항구에 소속된 선박들의 물품을 탈취하기도 했다. 또한 항구의 지배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무역항을 직접 습격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로 세수와 물품에 대한 항구 권력자와 상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습격은 물품의 탈취보다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지배적 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을 얻기 위함이었다. 항구에 정박한 후에도 언제나 자유롭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1502년부터 1508년 사이에 말라카를 방문한 바르테마(Varthema)가 그의 여행기에 말라카의 사회상을, “어둠이 내리면 마을을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치 개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무역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들의 배에서 잠을 잔다”고 기술하고 있다.⁹⁾ 이는 당시 동남아의 해상무역이 바다에서나 항구에서나 그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3. 통치자와 상인관계

15세기 동남아에서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우선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몇몇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충분한 카리스마로 지역적 동맹이나 교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했다. 둘째로 유력한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polity)의 권위에 올라야 했다. 셋째로 이곳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교류를 확대하고, 유지하며 또한 규율해야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고안하고, 내륙지역의 경제적 자원을 탐색하며, 활발한 중개무역을 실시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9) Ludovico Di Varthema. 1928. *The Itinerary of Ludovico di Varthema of Bologna from 1502-1508*. edited by Norman Mosley Penzer and translated by John Winter Jones, London, The Argonaut Press. Lee(2005: 29)에서 재인용.

재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며 재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세속적 권위를 확장하고 보다 많은 지지자를 끌어 모아야 했다(Maguin 1991: 47-48). 도서부 동남아 군소 왕국들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 관념으로 인해 통치자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기 쉬웠다. 일례로 왕은 신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살해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왕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는 신이 허락한 것이고,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반란을 불러 왔으며, 하루에 세 명이 서로 죽임을 통하여 세 번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Dion 1970: 146).

15세기 동남아 도서부 해안 국가들은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을 무역에 의존했다. 훌륭한 통치자의 특성과 의무는 충분한 수의 상인들을 자신의 항구로 모아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왕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항구들로 자신의 주권을 확장하려 노력했다. 밀러(Milner)에 따르면, 통치자들 중에는 “무역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중국적으로 왕국을 상업적 투기의 대상물(venture)처럼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 말라카 왕국에서 관세수입 그리고 관련된 추징금들은 술탄 수입의 약 90%에 달했다. 술탄 자신이 직접 무역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선박을 소유하고 직접 배를 타고 말라카와 벵갈만의 인도 연안을 다니기도 했다(Subrahmanyam 1995: 757). 이와 같은 도서부 동남아 왕국들의 상업주의적 성격은 통치자와 상인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

동남아에서 향신료와 같은 현금작물(cash cropping)이 생산되고 외지와의 무역이 번성하면서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낳았다. 새로운 정착지가 등장하였으며, 쌀 경작과 연계되었던 보다 안정적인 신분

10) A. C. Miller. 1982. *Kerajaan: Malay Political Culture on the Eve of Colonial Rule*.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Maguin(1991: 47)에서 재인용.

관계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환금작물의 생산과 수집, 그리고 무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인했다(Reid 1993a: 32-36). 특히 무역은 부의 원천으로서 중요했으며, 부는 곧 통치자들이 추종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복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권력의 원천이었다. 부를 창출하는 시장은 상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으며, 이들의 행태는 시장자유 확대와 함께 전제적인 전통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Hall 1999: 271-72).

말라카와 같이 수많은 외국인 집단과 상업적 관계를 갖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에서 국가의 권위는 시장에 의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고, 상인들은 도시의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엄격한 영토적 주권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상인들은 통치자의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인근 왕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무역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통치자와 상인은 공생관계를 유지했으며, 통치자의 무력과 상인의 상업기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Lee 2005: 13). 통치자와 상인은 세금징수권(tax farming)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Christie 1998: 361-369). 이는 다원적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들 간의 관계는 분열보다는 결합의 관계로서 상인들의 정치적 권력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15세기 동남아는 관료와 상인 간의 신분적 한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상인들은 종종 결혼이나 뇌물 등으로 스스로가 고급관직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Lee 2005: 38). 관료적 위계의 상승이 능력보다는 통치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뇌물의 공여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상호간의 불신이 만연했다. 특히 권력의 원천인 부를 창출하는 상인들은 통치자의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되어 끊임없는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자본주의 주체인 자본가 계급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

다.¹¹⁾ 포르투갈 역사가 알베스(Jorge Alves)는, “누구든지 재산을 축적하기 원하는 사람은 술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술탄이 상인을 반란혐의로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¹²⁾

동남아 통치자들의 탐욕스러운 수탈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추세력인 자본가 계층의 성장과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이후 동남아 저발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Kathirithamby-Wells 1993; Reid 1993a: 267-325). 강력한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탈을 일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인들은 이를 경계하고 회피했다.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재산권의 보호나 거래 분쟁에 대한 판결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합의된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진 후, 불안정한 계승자가 강력한 상인계층과 합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술탄 마흐무트(Mahmud, 1488-1511) 치하에서 말라카 법전(Melaka Legal Code)이 만들어진 것과 아체에서 최초의 여왕이 들어섰을 때 아체법전(Adat Aceh)이 정리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법전은 이후 통치자들에게 전수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간과할 수

11) 말라카의 두 저명한 상인, 라자(Raja Mendaliar)와 나이나(Naina Sura Dewana) 사이의 무역에 관한 다툼이 행정총리(bendalhar)인 스리(Sri Maharaja)의 처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말레이 역사서(Malay Annals)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저명한 상인은 라이벌로서 항상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했다. 나이나는 행정총리에게 금으로 뇌물을 주고, 라자는 제독(laksamana)에게 뇌물을 주었다. 제독과 그의 친족들이 술탄의 충예를 받고 있는 터이라, 술탄은 라자가 꾸며낸 이야기, 즉 “행정장관이 나이나와 공모하여 반란을 꾀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술탄은 그 둘을 처형할 것을 명했다. *Malay Annals, an annotated translation by Charles Cuthbert Brow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5-156.* Lee(2005: 37)에서 재인용.

12) Alves, Jorge M. dos Santos. 1998. "The Foreign Traders' Management in the Sultanates of the Strits of Malacca: The cases of Malacca, Samudera-Pasai and Aceh, 15th and 16th Centuries." In Claude Guillot, Denys Lombard and Roderich Ptak (eds). *From the Mediterranean to the China Sea*, pp. 131-142.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p. 140. Lee(2005: 36)에서 재인용.

없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일부지역에서 그리고 짧은 시일에 부분적으로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Reid 1993a: 245-251).

요약하면 15세기 동남아 해상무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세계 무역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각종 물품과 사상들이 교류되었고, 이를 통해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산업의 발전 등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증가하는 무역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기도 했으며,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상인계급의 확산은 사회적 계층구조가 다원화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는 곧 근대화의 진척과 자본주의적 문화의 확산을 나타내는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통적인 권위 속에서 합리성에 근거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항구들이 경쟁하는 체제 속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통치자들의 수탈적 행태에 기초한 권위구조가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

Ⅲ. 16세기 포르투갈의 진출과 영향

15세기 중엽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스만 터키가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아시아 물품, 특히 향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를 계기로 향료를 구하기 위한 서유럽 국가들의 대항해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포르투갈이었다. 1128년 독립한 포르투갈은 13세기와 14세기 초까지 이슬람 세력의

로부터 실지회복(reconquista) 전쟁과 십자군 원정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었고, 이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해양탐험의 열정으로 변화되었다. 15세기 유럽의 기준으로도 포르투갈은 가난한 국가였으며, 인구도 약 1백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Lee 2005: 20-22). 이러한 배경 하에 포르투갈은 15세기 초부터 해양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이후 약 100여년 만에 동남아에 진출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해양개척은 교황의 칙서에 의해 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는 정복지에 대한 포르투갈 국왕의 영토적 지배권과 무역독점권, 그리고 포교권 등이었다.

바스코 다 가마가 1499년 9월 최초로 인도로부터 리스본 항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동행한 170명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4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항해에서 그가 가져온 후추는 여행경비의 60배 정도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포르투갈 왕실은 아프리카에 대한 종래의 관심을 아시아로 집중시키고 엄청난 이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항로를 통한 무역활성화에 집중하게 되었다(강장희 1999: 29).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는 길고 위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행에 참여할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항해에 참여한 군인이나 선원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에서 불량아(degradados)들이나 범죄자들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으며, 곧 이탈자가 되어 부유한 아시아 상인의 용병이 되거나 해적에 가담하기도 했다(Lee 2005: 84).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르투갈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인도양 무역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동남아에서 무역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동부 지중해 국가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인도양 무역로에 힘의 공백이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¹³⁾ 또한 포르투

13) 오스만과 베니스의 전쟁(1499), 말라카정권의 불안과 오스만에 의한 이집트 정복(1517) 등 이슬람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이 먼 인도양

같이 현지사람들과의 적절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¹⁴⁾

1. 식민지 구축과 신무기 도입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은 과거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항구도시 간의 분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당시 동남아 항구도시 간 무력충돌은 단지 물품의 탈취와 상대 무역항의 위상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말라카를 점령하여 무역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포르투갈 본토의 주권이 미치는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었다. 물론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과 통치는 19세기에 본격화되는 식민지의 확장과는 차이가 있다. 무역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진출한 포르투갈은 넓은 영토를 지배하여 통치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무역거점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쳤다.

포르투갈은 말라카를 점령하자마자 중국인과 페구인 상인들을 따라 시암과 페구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자바상인을 자바로 보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로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배후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말라카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기도 했지만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적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많은 주변국가 왕들

의 무역로를 돌 볼 여력이 없었다(이희수 2003; Boyajian 1993: 6).

14) 역사가 꼬레아(Correa)는 많은 아시아 상인들이 포르투갈과 무역을 트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고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참여자와 기존의 거래조건보다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말라카에서 그동안 술탄의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국인과 힌두교 상인들은 포르투갈의 진출을 환영하며 도왔다. Gaspar Correa. 1923. *Lendas da India*, Coimbra: Imprensa da Universidade Coimbra. p. 59. Lee(2005: 46-47)에서 재인용. 말라카 술탄의 독단으로부터 도망나온 5인의 중국인 선장은 포르투갈에게 말라카 점령에 필요한 결정적인 군사정보를 제공했고, 포르투갈 함대에게 자신들의 배를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Lee 2005: 51-54; Williams 1976: 58).

과도 수많은 교신을 하면서 자신이 진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호친선 관계를 추진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상당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사절단이 말라카를 방문했다(Lee 2005: 60-68; Smith 1968). 이는 15세기 초 정화의 원정 이래 동남아 항로에 부재했던 ‘지배적 권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남아 해상에서의 포르투갈 헤게모니는 주변국들의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유럽의 경쟁자들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포르투갈은 말라카 점령 후 이전 법과 관습에 따라 통치함으로써 현지의 외국인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상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일례로 포르투갈 당국은 시기심으로 말레이 관원의 집을 불사른 포르투갈 병사를 처벌함으로써 스스로의 청렴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외국상인들을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 인도 상인들은 종종 동남아의 말라카, 델리, 그리고 파사이와 무력충돌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포르투갈이 지역의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상인들은 말라카의 술탄 치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려는 포르투갈을 환영했으며 적극 협조했다.¹⁵⁾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 본토와 무역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Lee 2005: 69-70).

새로운 무역시장에 진입한 포르투갈은 현지의 물품과 교환할 만한 가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산 총포류는 외교나 상업적 협상에서 포르투갈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5) 해외의 중국 상인들은 체제 이탈자들로서 본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인이건 유럽인이건 현지의 지배자들과 종종 상업적 혹은 정치적 동맹을 맺는데 익숙해 있었다(Wills 1993: 87).

자원이었다. 포르투갈이 진출하기 이전 동남아에서 사용한 일반적 인 무기는 칼(Kris), 활, 그리고 취관(吹管, blowpipes) 등이었다. 동남아에 총포류가 전해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거의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포르투갈은 군대의 전문 기술을 교환하고 신무기를 전파했다. 이는 유럽산 무기의 수요를 증대시켜 포르투갈의 협상력을 높였다. 소총(Musket)이나 대포와 같은 신무기는 지역의 왕권 경쟁과 관련하여 왕들에게 유용한 것들이었다.¹⁶⁾ 포르투갈은 지역의 왕을 옹립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 터네이트(Ternate)나 티도르(Tidore)처럼 인도네시아 군도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먼 섬에서 온 지도자들이 포르투갈의 도움으로 술탄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혹은 탈취하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확대한다거나 혹은 포르투갈의 속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Lee 2005: 65-77).

포르투갈의 식민지 구축과 신무기의 도입은 동남아에서 왕권경쟁과 같은 일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었지만, 국가와 사회에 관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대다수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Lee 2005: 102; Wolf 1982: 235). 더불어 포르투갈은 기존의 동남아 무역 시장에 새로운 물품을 들여와 동남아 사람들의 생활과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가장 번성하던 무역루트에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우세한 해상력을 통해 구축한 해상 헤게모니를 이용하여 상업이익을 창출하고자 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동남아에 구축한 식민지와 새로운 무기의 도입은 이후 동남아에 영토 주권 개념과 중앙집권화 된 보다 근대적

16) 리버만(Lieberman 1993, 1995)은 해상무역의 확대가 끼친 정치적, 문화적 영향에 대해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도 도서부와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도 신무기의 도입이 대륙부 동남아에서 군소왕국들의 몰락과 보다 중앙집권적이며 지배적인 왕권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

의미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2. 카르타즈 제도의 실시와 무역독점

16세기 동남아는 상업적 독점가들의 꿈의 지역으로 여겨졌다. 지극히 상업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의 지배자들은 외부인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동남아 특산물이었던 향료는 생산지의 독점과 무역로의 통제로 유럽의 시장을 독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동남아 항구도시들은 제한된 배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했다. 동남아의 항구에서 인도, 아랍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항해로는 좁은 두 해협, 말라카와 순다를 통과해야 했다. 이는 이미 수세기 동안 지역의 지배자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 즉 두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널리 산재해 있는 다른 항구들에 대해 느슨한 헤게모니를 구축했던 것이다(Wills 1993: 98).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과 카르타즈 제도를 통한 말라카 해협의 통제도 궁극적으로 지역의 오랜 전통을 답습한 것이었다.

카르타즈 제도는 동남아에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여러 유형의 통행증 제도가 동남아 해상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카르타즈(Cartaz)는 아랍어 쿼타즈(Qirta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아랍 상인들에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중국에서도 중국을 떠나는 자국 배에게 면허증을 제공하는 등 유사한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 포르투갈도 현지에서 실행되는 통행증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¹⁷⁾ 그러나 포르투갈은 단순히 통행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를 넘

17) 일레로 구피(Malique-Gupi)에서 오는 구자라티 상인들이 포르투갈 함대에 의해 나포될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체(Baroche) 군주가 발행한 통행증을 제시했고, 이를 보고 포르투갈 함대는 그 배를 나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Lee 2005: 107).

어 이미 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대양에 대한 독점적 주권을 주장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문서로 된 통행증을 발급하는 대신 깃발을 제공하여 선박에 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과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카르타즈 제도를 강제하는 데는 대양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포르투갈은 해상 군사력에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었다(Lee 2005: 108; Thomaz 2001: 76; Wolff 1998: 310).

카르타즈 제도는 특정 항해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상선들을 말라카로 향하게 하였고 통행세를 강제함으로써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카르타즈는 상인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이었지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 공동체로부터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카르타즈 제도가 단순히 통행세를 넘어 포르투갈의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한 무역독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후추를 나르는 선박들에게 주어지는 카르타즈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후추상인들의 무역을 제한하고 포르투갈이 이를 독점하고자 했다. 그 결과 말라카 해협에서 카르타즈 깃발 없이 항해하다 포르투갈 함대에게 나포된 선박들 중 후추를 실은 상선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Lee 2005: 107-109).

포르투갈의 독점적 무역행태는 말라카 무역재개 후 상인들을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동남아의 무역항이 단지 상인들 간의 합의된 장소이며, 언제라도 다른 무역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였다. 인도네시아의 향료가 홍해로 통하는 것을 막으려던 포르투갈의 시도는 현지의 해로에 능숙한 항해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항해로를 개척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주변의 아체, 조호르, 자바, 아유타야, 바고, 등지의 무역항들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르투갈의 무역독점 시도는 16세기 후반부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¹⁸⁾ 그러나 포르투갈의 입장에서 말라카의 점령은 유용한 무역루트의 확보를 의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말라카에서 포르투갈 선박들의 동남아 물품 선적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1540년부터 1580년까지 말라카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오히려 배나 증가했다(Hall 2004; Scammell 2000: 522; Williams 1976).

포르투갈의 카르타즈 제도와 독점적 무역행태는 동남아의 거대한 무역규모와 복잡한 해상무역 행태를 완전히 지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남아에 새로운 항해로와 항구들이 개척되었으며, 이는 단지 포르투갈의 영향뿐만 아니라 팽창하는 동남아 해상무역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 리스본에 도달하는 원거리 무역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존의 동서 무역규모에 비해 그 경제적 가치는 보잘 것 없었다(Wolff 1998: 301). 오히려 기존의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중개무역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이를 초과했다. 포르투갈의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도래하는 서구세력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 네덜란드와 영국도 지역의 해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카르타즈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들이 말라카를 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역권의 독점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Lee 2005: 126; Wolf 1998: 312).

18) 포르투갈은 1513년 향료 군도에 진출하여 많은 양의 향료를 획득하게 되고, 이후 3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1560년대는 이슬람에 의한 지중해 상권이 회복되고 포르투갈의 무역량을 증가하게 된다. 1575년 포르투갈은 터네이트(Ternate)를 이슬람 세력에게 잃고, 말라카에서 자바 상인들이 들여온 향료를 구입하는 형태로 변화했다(Reid 1990: 8-9).

3. 기독교 전파와 카사도 정책

동남아에서 종교의 전파는 무역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종교적 유대는 무역관계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순례 행렬은 무역루트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포르투갈이 진출할 시점에 동남아는 상좌불교와 이슬람이 널리 전파되어 무역은 물론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보편종교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전파는 기존의 종교와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히 이슬람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Subrahmanyam 1995: 756). 포르투갈은 해양진출의 명분 중 하나로 동방의 기독교도와 연합하여 이슬람 세력을 협공하기 위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명분은 해양진출 과정에서 이교도들과의 평화적인 협력과 무역관계가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시되었다. 더군다나 포르투갈 왕 마누엘(Manuel I, 재위 1495-1521)은 기독교 전파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Lee 2005: 94).

해양진출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많은 경우 모슬림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초기부터 포르투갈은 아시아 해양무역이 아랍세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아랍인들은 높은 항해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Lee 2005: 73). 포르투갈은 말라카 정복 후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를 행정에 참여시켰다. 술탄 시절 유력한 상인이었던 힌두교도 샤투(Nina Chatu)와 모슬림 우티무트라자(Utimutraja)를 각 상인 공동체의 수장으로 임명했다¹⁹⁾(Lee 2005: 57). 그러나 이슬람과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무역항으로서 말라카의 위

19) 샤투의 적극적인 협력은 현지 상인 조력의 극단적인 예이다.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한 직후 샤투는 그의 켈링(Keling) 공동체로부터 700명을 모아 무아르(Muar)에 있는 술탄의 요새를 공략하는 데 포르투갈 군을 도왔다. 1511년 초 샤투는 포르투갈이 요새를 구축하는데 조력하기도 했다. 그는 말라카에 돌이 없고, 땅이 약해서 요새를 지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이슬람 사원과 무덤의 대리석이 요새를 구축하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Lee 2005: 90-91).

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슬람 상인과 협력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군도 동쪽에 있는 향료섬 터네이트(Ternate)에서 포르투갈은 1575년 가톨릭 전파에 저항하는 이슬람 술탄들에 의해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인근 이슬람 왕국인 조호르와 아체와는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동남아에서 기독교 포교가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에 들어서였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톨릭에 대한 신교와 개혁주의의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²⁰⁾ 가톨릭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집단은 1540년 결성된 예수회(Society of Jesus)였다. 동남아 선교에 많은 영향을 준 선교사 사비에르(Francis Xavier)가 말라카에 도착한 것은 1545년 9월이었다. 선교사들은 우선 교육제도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교화하는 일을 했다. 교구학교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유럽언어(라틴어, 포르투갈어)를 가르쳤다. 많은 지역민이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 이유는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가지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포르투갈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의 습득은 말라유(Melayu)가 통용되던 말레이 군도를 넘어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보다 넓은 무역세계에서 유용했기 때문이었다(Lee 2005: 98-99). 그러나 필리핀과 같이 분산된 권위구조와 보편종교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과는 달리, 포르투갈은 이미 중앙집중적인 권위를 중심으로 보편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20) 유럽에서는 트론티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5-1563)를 통해 로마가톨릭을 재정비하고, 선교를 가톨릭의 주요 의무로 규정했다. 이는 가톨릭 선교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Guimarães Sá 2007).

포르투갈이 해양진출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인간적 본능과 국가적 목적에 의해 타협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카사도 정책이었다. 기독교에서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비도덕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더구나 당시 상황에서 이교도와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카사도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브라질의 사회학자 프레이어(Gilberto Freyre)는 포르투갈인들이 과거 아랍민족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성(性)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고 봤다. 포르투갈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본능과 기독교적인 윤리나 도덕성을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동화정책을 통해 대 포르투갈 제국의 건설’로 체계화된 것이었다(이승용 1997: 165-66).

다른 한편으로 카사도 정책은 식민지에서 겪게 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본국에서 파송된 인원의 절대적 부족과 균을 이탈하는 병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력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포르투갈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갈 포르투갈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 포르투갈인이 현지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만드는 것이었다(Lee 2005: 85). 포르투갈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으며,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포르투갈 현지에서 고아출신 여아들을 데리고 와서 현지인과 결혼시키기도 했다. 이슬람 교도였던 말라카 여성들이 기독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포르투갈인과 결혼한 여성들은 많은 부분 인도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이들 후손들에 대한 대우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포르투갈 지배 당시에는 자동적으로 포르투갈 시민권이 부여되는 등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Marcus 1971: 32; Margaret 2000: 22-24). 그러나 이후 도래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 후손들에 대해 인종적인 차별을

했다. 복서(R. Boxer)의 기록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들을 ‘바퀴벌레’라고 칭하기도 했다(Borscherg 2004: 147-60; Boxer 1963; Smith 1968).

카사도 정책이 동남아 해상무역에 남긴 영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포르투갈 후손들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언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동남아 무역루트에서 통역 등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어는 지역의 무역 공통언어(*lingua franca*)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현지어에도 영향을 주어 포르투갈 어원을 가진 말레이어 단어가 400여개나 된다는 조사가 있다(Lee 2005: 129). 말라카에서 포르투갈의 통치가 끝난 1641년 이후 네덜란드 통치하에서도 이들은 포르투갈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오늘날까지 포르투갈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²¹⁾ 그러나 동남아에서 포르투갈 후손들이 남미에서처럼 다원적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현지인과 결혼한 포르투갈인들이 상인이나 관료계급이 아닌 군인이나 선원 등 하층계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현지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상인보다는 대부분 인근 해안의 어부로 정착케 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남게 되었다.

21) 필자는 말라카에 있는 포르투갈 후손들의 정착지(Portuguese settlement)를 방문하여, 정착지의 부대표(Mr. Michael Banerji)와 정착지의 역사와 규모, 생계,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해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정착지는 1973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약 3,000여명의 포르투갈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역에 약 15,000~16,000여명의 후손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주로 어업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90퍼센트 정도가 식당 등 관광사업이나 기타 업종에 종사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에 의해 말라카가 점령당한 후 더 이상 포르투갈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네덜란드인, 영국인, 그리고 인도인들과 결혼한 후손들이 모두 자신을 포르투갈인의 후손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착지 안의 모든 집들에는 가톨릭의 상징물들이 있으며,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포르투갈인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현지 방문과 인터뷰는 2011년 1월 22일에 실시했다.

요약하면, 포르투갈이 동남아에 들여온 새로운 요소인 식민지의 개척과 신무기의 도입은 동남아적 관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해상 헤게모니의 등장을 의미했으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 무역 네트워크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카르타즈 제도와 무역독점의 추구는 동남아 해상무역에 새로운 거래비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진화단계에 있어서 상업 자본주의(mercantile capitalism) 시대의 중상주의적 상업문화를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²²⁾ 기독교의 전파와 카사도 정책의 추진은 교육과 인종적 동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계층을 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는 종교개혁과 함께 성장한 신교(protestantism)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기 때문에 가톨릭의 포르투갈은 자본주의적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힘들다. 카사도 정책도 본질적으로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권위에 충성하는 자신들의 후손을 창조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를 주도할 사회계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IV. 맺음말

오늘날 동남아 사회의 일상을 보면 서구문명의 영향이 과거 인도 문명이나 중국문명이 남긴 영향보다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진출과 더불어 동남아 전역에 전파된 근대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문화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구문명 전파의 침병으로서 포르투갈의 진출이 남긴 영향은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은 해양개척을 통해 이루어졌고, 동남아의 특산물을 찾아

22) 자본주의의 개념과 역사에 관해서는 Gras(1942)를 참조하시오.

무역을 열기 위한 목적이었다.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먼 항해로를 거쳐 동남아에 도달하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아시아 무역이 가지고 있던 자유롭고 수용적인 특성에 기초하였다. 더불어 포르투갈의 일탈적인 행태를 강력히 대처할 지배적인 세력이 부재했다는 시기적인 상황도 이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이 진출한 16세기 동남아는 이미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상과 문물의 교류는 산업적인 발달은 물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진출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보다 강력한 세력으로 진출하여 동남아 역사 진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서구세력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남겼다는 의미가 더 크다.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 양상은 남미에서처럼 정복과 지배와는 달리 참여와 동화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15세기 동남아의 정신적, 물질적 문명이 해상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은 이러한 동남아 해상무역의 역동성에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구적 요소로서 동남아에 도입한 식민지 구축과 신무기 도입, 카르타즈 제도와 독점적 무역행태,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와 카사도 정책 등은 동남아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던 해상무역의 특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식민지 구축은 무역거점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었고, 신무기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의 권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위력적이지는 못했다. 카르타즈 제도와 독점적 무역행태는 오히려 동남아 무역네트워크를 더욱 다변화하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기독교의 전파와 카사도 정책도 전통적 권위에 도

전하여 근대화를 주도할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동남아에서 서구세력이 지배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시기는 포르투갈이 진출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였다. 골드스톤(Goldstone 1993: 109)에 따르면, 유럽이 아시아에 도래한 이후 250년 동안(1500-1750)은 아시아 무역 패턴의 대부분을 변경하지 못했으며, 오직 몇몇 상품을 위한 중계인 역할을 대신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점진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이동에 포르투갈이 제공한 공헌은 보다 잘 준비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무장한 다른 서구세력에게 동남아 진출의 물고름 뜬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역사가 타우니(R. H. Tawny)는 “포르투갈이 동-서양의 보물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보물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으며 단지 수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했다.²³⁾

본 논문에서는 포르투갈이 동남아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문화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를 살펴보았다. 포르투갈이 동남아 사회에 미친 영향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의 지평도 포르투갈과 동남아라는 단면적 관계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 남미, 그리고 동남아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포르투갈의 동남아 정책과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시적 측면에서 포르투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후 진출하는 서구세력이 포르투갈과 어떠한 특성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특성의 어떠한 측면이 포르투갈로 하여금 경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서구문명이 동남아에 전파되는 맥락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3) José Calvet de Magalhães. *História do Pensamento Econômico em Portugal*. Coimbra: Universidade de Coimbra, p. 960. 최영수(2006: 375)에서 재인용.

주제어: 동남아, 해상무역, 포르투갈, 서구화, 근대화

〈참고문헌〉

- 강성호. 2006.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나?” 『西洋史論』 90: 43-73.
- 강장희. 1999. “16세기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무역권 참여과정에 대해.” 『동양학연구』 5: 19-41.
- 강장희. 2001. “포르투갈의 동방무역 진출과 그 위치에 대해서 - 항해독점권 주장과 그 실제 적용을 중심으로.” 『동양학연구』 7: 165-196.
- 고원. 2010. “유럽 자본주의와 인도양 세계.” 『西洋史論』 107: 235-253.
- 김금수. 2001. “자본주의 발생과 노동자계급의 기원.” 『노동사회』 58: 99-108.
- 김대성. 1987. “인도양에서의 오스만제국과 포르투갈의 대립 - 16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6: 1-20.
- 김성기 외. 1994.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성원. 2005. “근세 초 포르투갈의 대(對)미얀마 영향.” 『지중해지역연구』 7(2): 51-73.
- 길인성. 1995. “근대 전기의 향료무역과 동남아 경제.” 동남아지역연구회 (편), 『동남아의 정치경제-산업화와 발전전략』, pp. 3-39.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설민신 · 최경식 · 송창호. 1997. “유럽 근대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여가에 미친 영향.” 『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 14: 127-141.

- 양승윤. 2002. “동아시아 무역거점으로의 말라카 왕국에 관한 연구.” 『東南亞研究』 11: 159-192.
- 이승용. 1997. “포르투갈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해.” 『한국아프리카학회지』 9: 161-176.
- 이용일. 2008. “유럽중심주의와 근대화: 미국적 세계지배비전으로서 근대화이론의 형성과 독일사적 전유.” 『역사와 경계』 69: 421-453.
- 이희수. 2003. “오스만 터키와 동부 지중해의 해상교역.” 『지중해지역연구』 5(1): 97-125.
- 조흥국. 2001. “14-17세기 동남아-중국-일본 무역관계.” 『동남아시아연구』 11(2): 35-61.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주).
- 최영수. 2005. “포르투갈과 일본의 교류에 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질연구』 2(1): 117-140.
- 최영수. 2006. “콜럼버스 이전의 해상발견에 관한 연구 - 포르투갈의 해상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3): 337-378.
- 폴라니, 칼 역음. 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이종욱 (옮김), 서울: 민음사.
- Ptak, Roderich · 신용철. 1985. “포르투갈 극동무역의 성쇠 - 1513~1640년간 마카오와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22: 135-158.
- Albuquerque, Alfonso. 1990. *Albuquerque: Caesar of the East: Selected Text by Alfonso de Albuquerque and His Son.* edited with a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 by T. F. Earle and John Villiers. Warminster: Aris and Phillips.
- Benda, Harry J. 1962. "The Structure of Southeast Asian History: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3(1): 106-138.

- Bethencourt, Francisco and Curto, Diogo Ramada. 2007. *Portuguese Oceanic Expansion, 14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schberg, Peter (ed.). 2004. *Iberians in the Singapore-Melaka Area and Adjacent Regions, 16th to 18th Century*. FUNDAÇÃO ORIENTE Lisboa: Harrasowitz Verlag·Wiesbaden.
- Boxer, Charles Ralph. 1963. *Race Relations in the Portuguese Colonial Empire, 1415-1825*.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Boyajian, James C. 1993. *Portuguese Trade in Asia under the Habsburgs, 1580-1825*.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hristie, Jan Wisseman. 1998. "Javanese Markets and Asian Trade Boom of 10th to 13th A.D."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1(3): 344-381.
- Coedès, George. 1968.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Edited by Walter F. Vella and Translated by Susan Brown Cowing.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An East-West Center Book.
- Dion, Mark. 1970. "Sumatra through Portuguese Eyes: Excerpts from Joao de Barros' Decadas da Asia." *Indonesia* 9: 128-162.
- Fairbank, J. K. 1942. "Tributary Trade and China's Relations with the West." *The Far Eastern Quarterly*. 1(2): 129-149.
- Gras, N. S. B. 1942. "Capitalism - Concept and History." *Bulletin of the Business Historical Society*. 16(2): 21-42.
- Goldstone, Jack A. 1993. "Trend or Cycles?: The Economic History

- of East-West Contact in the Early Modern World.”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36(2): 104-119.
- Guimarães Sá. 2007. “Ecclesiastical Structures and Religious Action.” In Francisco Bethencourt and Diogo Ramada Curto (eds), *Portuguese Oceanic Expansion, 1400-1800*, pp. 255-2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Kenneth R. 1999. "Economic History of Early Southeast Asia." In Nicholas Tarling (ed.),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from early times to c.1800*, Vol. 1, (paperback edition), pp. 183-27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Kenneth R. 2004. “Local and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rs in the Straits of Melaka Region: 600-1500.”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14(2): 213-260.
- Heidhues, Mary Somers. 2000. *Southeast Asia: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 Kathirithamby-Wells, Jeyamalar. 1993. "Restraints on the Development of Merchant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before c. 1800." In Anthony Reid (ed.),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Belief*, pp. 123-148.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Lach, Donald Frederick. 1993. *Asia in the Making of Europe*. (Reprin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ee, Keith Kum Chuen. 2005. *Conquest or Collaboration? In Portuguese Malacca From 1511 to 1521*. Master These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Lieberman, Victor. 1993. "Local Integration and Eurasian Analogies:

- Structuring Southeast Asian History, c. 1350-c. 1830." *Modern Asian Studies* 27(3): 475-572.
- Lieberman, Victor. 1995. "Review: An Age of Commerce in Southeast Asia? Problems of Regional Coherenc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4(3): 796-807.
- Lo, Jung-Pang. 1955. "The Emergence of China as a Sea Power During the Late Sung and Early Yuan Periods." *The Far Eastern Quarterly* 14(4): 489-503.
- Lockard, Craig A. 1995. "Integrating Southeast Asia into the Framework of World History: The Period before 1500." *The History Teacher* 29(1): 7-35.
- Manguin, Pierre-Yves. 1991. "The Merchant and the King: Political Myths of Southeast Asian Coastal Polities." *Indonesia* 52: 41-54.
- Pearson, Michael. N. 1976. *Merchants and Rulers in Gujarat, The Response to the Portuguese in the Sixteenth Centuries*.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ires, Tomé. 1944. *The Suma Oriental and the Book of Francisco Rodrigues*. vols. 1 and 2, edited and translated by Armando Cortesão, London: the Hakluyt Society.
- Ptak, Roderich. 1998. *China and the Asian Seas: Trade, Travel and Visions of the Other (1400-1750)*. Brookfield: Variorum.
- Raid, Anthony. 1990. "An 'Age of Commerce' in Southeast Asian History." *Modern Asian Studies* 24(1): 1-30.
- Reid, Anthony. 1993a.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New Haven

-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eid, Anthony (ed.). 1993b. *South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Era: Trade, Power, and Pow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akamaki, Shunzō. 1964. "Ryukyu and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3(3): 383-389.
- Sarkissian, Margaret. 2000. *D'Albuquerque's Children: Performing Tradition in Malaysia's Portuguese Settle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ammell, Geoffrey Vaughan. 1989. *The First Imperial Age: European Overseas Expansion c. 1400-1715*. London: Unwin Hyman.
- Scammell, Geoffrey Vaughan. 2000. "After Da Gama: Europe and Asia since 1498." *Modern Asian Studies* 34(3): 513-543.
- Schumpeter, Joseph A. 196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Third Edition, New York: Harper Torchbooks.
- Smith, Ronald Bishop. 1968. *The First Age of the Portuguese Embassies, Navigations, and Peregrinations to the Kingdom an Islands of Southeast Asia, 1509-1521*. Bethesda, Maryland: Decatur Press, Inc.
- Subrahmanyam, Sanjay. 1993. *The Portuguese Empire in Asia, 1500-1700: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Subrahmanyam, Sanjay. 1995. "Of Imarat(government) and Tijarat(trade): Asian Merchants and State Power in the Western Indian Ocean, 1400 to 17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4): 750-780.

- Thomaz, Luis Filipe F. Reis. 2001. "Precedents and Parallels of the Portuguese Cartaz System." In Pius Maledkandathil and Jamal Mahammed (eds). *The Portuguese, Indian Ocean and European Bridgeheads*, pp. 67-85. Kerala, India: Institute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of Malabar Educational Societ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esearch.
- Varthema, Ludovico Di. 1928. *The Itinerary of Ludovico di Varthema of Bologna from 1502-1508*. edited by Norman Mosley Penzer and translated by John Winter Jones, London: The Argonaut Press.
- Veen, Ernst van. 2000. *Decay or Defeat?: An Inquiry into the Portuguese Decline in Asia, 1580-1645*. Leiden: Research School of Asian, African and Amerindian Studies, Universiteit Leiden.
- Weber, Max. 1992. "Bureaucracy." In J. M. Shafritz and A. C. Hyde (eds). *Classic of Public Administration*. third edition, pp. 248-268. Pacific Grove, C.A.: Book/Cole Publishing Company.
- Wills, John E. Jr. 1993. "Review: Maritime Asia, 1500-1800: The Interactive Emergence of European Dominatio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8(1): 83-105.
- Winius, George D. 2001. *Studies on Portuguese Asia, 1495-1689*. Aldershot, Burlington USA, Singapore, Sidney: Ashgate VARIORUM.
- Wolf, Eric.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olf, Robert S. 1998. "Da Gama's Blundering: Trade Encounters in Africa and Asia during the European 'Age of Discovery', 1450-1520." *The History Teacher* 31(3): 297-314.

(2011. 05. 04. 투고; 2011. 05. 24 심사; 2011.06. 12 게재확정)

<Abstract>

Nature and Changes of Southeast Asian
Maritime Trade in 15-16 Century:
Focused on Portuguese Contact and Influences

Kim Dong–Yeob
(ISEA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east Asia developed maritime trade from the early period due to the suitable phys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e land consists of peninsular and archipelago, and located at the junction of the two monsoons in South China Sea and India Ocean. The people inherit cultural openness to receive outer influences positively. When Portuguese came to Southeast Asia in 16th century, the region had already enjoyed certain level of commercial development and sociocultural dynamics through the long time experience of interactions with outer world. The Portuguese contact to Southeast Asia was more of participation and assimilation than of conquest and rule experienced in South America. It was due to the higher level of spiritual and material civilization existed in Southeast Asia. Portuguese brought several new elements into Southeast Asia such as colonization and new weapons, Cartaz system and commercial monopoly, and Catholic mission and Casado policy. These new elements, however, did not impact much on the

existing Maritime trade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hange the sociocultural structure of Southeast Asia. Even though Portuguese contact itself did not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utheast Asia, it was meaningful in a sense that it opened a path and left a model case for the more powerful Europeans who came soon after her.

Key Words: Southeast Asia, Maritime Trade, Portugal, Westernization, Modernization

